**Credit Suisse – IBD (2007.12.24)**

안녕하세요. 접니다.ㅋㅋ

저는 내년 3월에 군대를 가게 될 것 같아, 가기 전 겨울에 인턴을 해봤으면, 좋겠다는 생각으로, 몇 군데 지원 했었습니다.처음 해보는 거라. 잘 몰라서. 한림이형이랑. 현아누나, 정환이형, 태원이 형 들께 이것 저것 물어 보면서 많이 배우면서  resume 작성이나 인터뷰 등에 대해서 많이 물어 보고, 우리 학교에 AT입사하신 문에게도,

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ㄳ^^:

우선. 처의 첫 면접이었던, CS의 경우

CS의 위치는 서울역에서 내려서 시청역 근처의 소공동이라는 곳의 한화빌딩 이라는 곳에 위치 합니다.

그런데, 한화금융프라자? 라는 곳 뒷쪽에 숨어 있습니다. 헤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처음 건물에 들어 섰는데, 놀랍게도, 골드만 삭스, 도이치뱅크, 맥쿼리증권 등과 함께 한 건물에 위치 하였습니다.

딱 들어서는 중에,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초간지 좔좔좔~ 벤츠를 타고 나오는 한 여성분의 모습은, 저의 허영심을 자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.(+.+)//

40분전에 도착하고, 20분 전에 들어 갔습니다. 면접은 한명씩 순서대로 보았습니다.

장소는 작은 방같은 곳에 큰 책상에 의자가 6~8개 있는 회의실 같은 곳이었습니다.

그곳에서 마주보며 앉아서 했습니다. 면접관은 2명 이었습니다. 두사람 다 근무한지 1년은 안되었습니다.

우선 레쥬메 내용을 체크 합니다. 이것 거적 물어 보는데, 본지가 오래 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.

* 자기소개해봐라,
* OR들었네? OR어떠냐? 그러더니. 제가 뭐. 흥미롭지만, 별 별 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.;;;;(<-이미 잘못;;) 그러닌까? 남자 면접관이, 그러냐? 난 재미 있던데,, 라고 하더군요..ㅎㅎㅎ
* 니 장점이 뭐냐?
* 성격은 어떠냐?
* 동아리 활동은 어떠냐?
* 어, 컴퓨터를 잘하나 보네? 메트렙도 하냐? 예전에 나도 메트랩 레쥬메에 썻는데, 다른 사람들이 못알아 봐서, 서운 했는데, ㅋㅋㅋ 반갑다. 이러더군요. 그렇게 말하니, 여자 면접관이 와 IB가 아니라 IT부서 가야 하는 거 아냐? 이러더군요.
* 사람들과의 관계 어떠냐?
* 부전공에 대해서 물어 보고,
* 회계들었네? 하면서, 회계에서 기본적인 5가지 표뭐냐? 하더군요. 또한 I/S에서 top line 에서 bottom line까지 말하라! 하고요.
* 재무도 들었네?(사실, 이번학기 듣고 있었음.;;) 하면서, 일반적으로 기업이 왜? debt가 equity보다 비율이 높냐고 그러더군요,, 저는 당시 잘 몰랐습니다. 나중에 알게 된건, 돈을 빌릴때, tax benefit 때문인 것이더군요...;; 또한. 모른다고 하닌까? WACC 안배웠겟네요? 이러더군요. 사실 배웟지만, 잘 기억이 안나서. 저는 네! 다음 시간에 배움니다 이랬습니다...ㅜ.ㅜ.ㅜ.ㅜ.ㅜ.ㅜ.ㅜ. 안습.!!!!(너무도 공부를 안해서.. 안습. 앞으로 열심히 공부 해야 겠다고 느꼈음..ㅠ.ㅠ.ㅠ.ㅠ..ㅠ..ㅠ.ㅠ.ㅠ.ㅠ)

이런것들 물어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. 뭐 중간 중간 잔 질문 몇개 있고,, 일부로 말은 끊는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 보라 더군요. 사실, 긴장해서 뭐 많이 물어 보지도 않았습니다.

* 생활 어떠냐? 이러닌까, 쉬는 날은 없고, 9~10시 출근에 2~3시 퇴근이 기본이라고 하더군요.
* 몇명 지원 했냐? 60명이 지원 했다고 하더군요, 아마도, 10~12정도 면접 본것 같습니다. (아마 최종은 1,2명 인듯 뒤에 AT커니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아는 선배가 붙었따고 하더군요.ㅎㅎ)
* 또한, 면접관이말하길, RESUME의 형식이 잘못되어 있으면, 읽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, 저보고 레쥬메, 옆에 들여쓰기 한줄모 맞추라고 이런거 싫어한다고 쌀쌀 맞게 말하더군요. (이건 도와주는 것도아니고..;;)
* 부족하지만, 열심히 하겠다고 말햇습니다.  그러닌까, 첫술에 배부를순 없지! 그러더군요.ㅋㅋㅋ